

치과대학 생활만족도를 통해 본 학사편입학제도의 타당성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구강과학연구소¹, 보존과학교실²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³, 성균관대 BK아동연구단⁴

박광균¹ · 이승종^{1,2} · 김 선³ · 김혜숙⁴

= Abstract =

A Study on the Validity of College of Dentistry Transfer System

Kwang Kyun Park¹, DDS, Seung Jong Lee^{1,2}, DDS, Sun Kim³, PhD, Hea Sook Kim⁴, PhD

Department of Oral Biology, Oral Science Research Center¹,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²,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³,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ung Kyun Kwan University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llege of Dentistry transfer system. The study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entree examination results and class achievement of transfer students and double major students, grades difference according to school year and their major of previous schools. Also, there was the comparis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the transfer students, double major students and ordinary students of dentistry school.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entree examination results and class achievement of transfer students and double major students, suggesting the entree examination results cannot be a reasonable prediction for class achievement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ades according to school year and their major of previous schools, showing that students can well adjust themselves no matter what their majors are.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ransfer and double major students' grades, and showed higher achievement as their school year passed.

Fourth, the transfer and double major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in school life than the ordinary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we can conclude the transfer student system of college of dentistry was successful, but needs some improvements in such as student selection, welfare facilities and school culture.

Key Words: Transfer student, Double major, Satisfaction

책임저자: 김 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361-5452, Fax: 02)364-5450

E-mail: skim@yumc.yonsei.ac.kr

* 이 연구는 2001년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서 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최근 의학계열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사 편입학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사 편입학 제도는 일반 학부 4년을 졸업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보다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의사로서의 활동, 학부전공과 의학 분야 전공간의 연계 능력 등이다.

이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도 전인적 인격을 갖춘 지식인과 치의학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인을 양성하고자 1994년도부터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치과대학 교육이 이러한 제도적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치과의사라는 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과대학 교육에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제도의 운영이 치과대학 교육목적에 적절한가, 이들 학생들은 치과대학 교육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가, 학업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사 편입학 및 복수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학사편입학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치과대학 입학성적과 치과대학 학업성취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에 대한 성별, 학년별 성적 및 이전 대학의 전공계열별로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생들의 치과대학 입학 후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대상 및 방법

치과대학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분석을 통한 학사편입학 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양적분석에는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학사편입생의 성별,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적분포의 차이 검증 등을 포함한다.

둘째, 조사연구, 즉 설문지를 개발하여 학사편입생과 복수전공생에게 실시함으로써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만족도 검사지는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연구자들에 의해 예비검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되었다.

1.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생의 치대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에 응답한 전체 학생은 252명이다. 이 중 학년별 세부사항이 명시된 학생은 243명으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편입생 21명, 복수전공 27명, 일반학생이 195명이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1학년 72명(남45; 여27), 2학년 64명(남 36; 여28), 3학년 60명(남 45; 여15), 4학년 47명(남 27; 여 20)명이다.

2. 방법

치과대학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치과대학 생활전반,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수, 동료, 행사, 성적평가, 장학 및 복지, 문화 특성 등에 대한 질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 검사의 개발을 위한 예비단계에서 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들과의 집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집단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년, 성별, 이전대학 전공 영역, 성적별 특성을 고려한 후 각 개별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전체 토론 내용을 녹음하였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설문지의 문항으로 재구성되거나 주요 요인으로 포함되어 만족도 검사의 개발과정에 반영되었다.

전체 학생의 성적자료는 2000년 2학기의 전체 성적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입학시 성적은 편입학 혹은 복수전공 이전의 전적 대학 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Table 1. Variance Analysis on Student's Achievement by Sex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042.932	1	1042.932	24.672	.000
Within Groups	10525.729	249	42.272		
Total	11568.661	250			

Table 2. Variance Analysis on Student's Achievement by Transfer, Double Major and Ordinary Student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77.156	3	159.052	4.059	.012
Within Groups	1724.157	44	39.185		
Total	2201.313	47			

결 과

1.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입학성적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 분석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입학성적과 치과대학 입학후의 학업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편입(복수전공)전 전공계열별로 구분하여 상관을 분석한 경우 역시 유의미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문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 입학시의 성적과 치과대학 학업성적 간의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과계열 및 공학계열의 경우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역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사례수가 매우 작다는 한계가 있으나 입학 당시의 성적이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에 대한 적절한 예언치가 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성적분석

1) 학생집단별 성적분석

치과대학생 전체의 성적을 분석하여 학생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편입학생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100점 만점 중 87.86점 (7.05), 복수전공학생의 경우 84.57점 (6.53), 일반 학생의 경우 84.41점 (6.72)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성적 평균점수는 편입학생 집단이 가장 높았고 복수전공, 일반학생 집단의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2.500$, $p=.084$). 이는 치과대학 학사 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들의 이전대학 전공영역별 성적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비록 사례수가 작다는 한계는 있으나 치과대학 입학에 동일계열 이외의 타계열(인문, 사회과학 등) 학생들도 치과대학 생활에 학업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 성별

전체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업성적을 비교한 결과 (Table 1), 전체 남학생의 학업성적은 83.33점 (6.53), 전체 여학생의 점수는 87.57점 (6.46)으로 여학생의 성적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4.672$, $p<.000$).

한편,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 여학생의 성적 평균은 86.62점 (6.53), 남학생의 평균점수는 85.50점 (7.2)으로 여학생들의 성적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F_{\text{비}} = .314$, $p=578$).

3) 학년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성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학년 83.58점 (8.49) 2학년 85.72점 (6.52) 3학년 85.57점 (5.91) 4학년 84.83점 (4.91)으로 나타나 학년별 학업성적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성적 분석에서는 Table 2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4.059$, $p=.012$).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1학년 평균성적은 81.44점 (9.11), 2학년 성적은 84.67점 (7.44) 3학년 성적은 90.91점 (4.83) 4학년 성적은 85.85점 (2.08)이었다. 사후 분석 결과, 3학년의 성적이 가장 높고 1학년의 성적이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업에 대한 적응력이 보다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치과대학 생활 만족도 분석

학사편입 및 복수전공 학생의 치과대학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치과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만족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치과대학의 학생 집단별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치과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치과대학 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치과대학생의 36.1% (92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4.4% (137명)는 ‘보통이다’ 9.1% (23명)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치과대학 생활전반에 대해 불만족을 경험하는 학생이 전체의 9.1%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생들은 치과대학 생활전반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만족정도를 영역별 (교육과정, 환경, 성적평가, 장학, 동료, 행사,

교수)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학생 집단의 만족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 60명 (23.8%), ‘보통이다’가 50.4% (127명), ‘만족한다’ 58명 (2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명 (1.6%), ‘매우 만족한다’ 3명 (1.2%)이다. 치대 교육과정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25.4%이고 만족하는 학생이 24.2%로 이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게 한 문항에 응답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 치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논의되는 새로운 지식들(예, 임플란트)을 수업시간에 좀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는 점, 너무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 전반에 대한 전체 학생의 만족정도는 ‘만족한다’가 145명 (57.5%), ‘매우 만족한다’가 70명 (27.8%), ‘보통이다’가 32명 (12.7%) ‘불만족스럽다’가 5명 (2%)이었다. 전체 학생의 약 78.3%가 치과대학내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평가에 대한 전체 학생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4명 (21.4%), ‘보통이다’가 153명 (60.7%), ‘불만족스럽다’가 43명 (17.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명 (0.8%)이다.

장학제도에 대한 전체 학생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2명 (24.6%), ‘보통이다’가 122명 (48.4%), ‘불만족스럽다’가 51명 (20.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4명 (5.6%) ‘매우 만족한다’가 1명 (0.4%)이다.

동료 전반에 대한 전체 학생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107명 (42.5%), ‘보통이다’가 113명 (44.8%), ‘불만족스럽다’ 19명 (7.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8명 (3.2%), ‘매우 만족한다’가 5명 (2%)이었다.

행사 전반에 대한 전체 학생의 만족도는 ‘불만족스럽다’ 58명 (23%), ‘보통이다’가 149명 (59.1%), ‘만족한다’ 40명 (15.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명 (1.6%), ‘매우 만족한다’가 1명 (0.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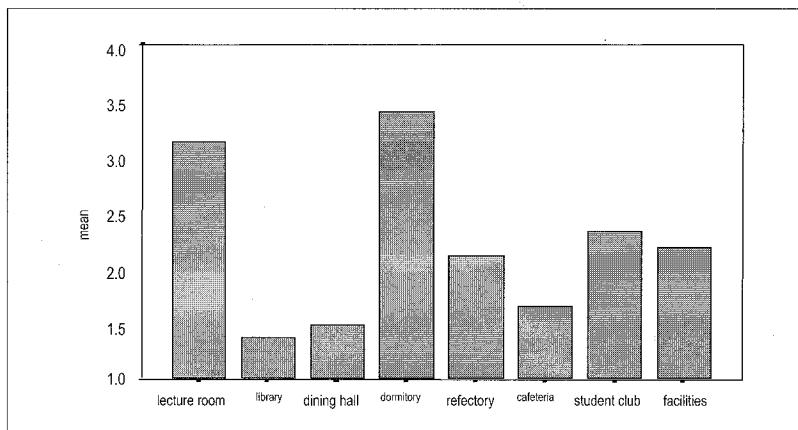


Fig. 1. Satisfaction level of welfare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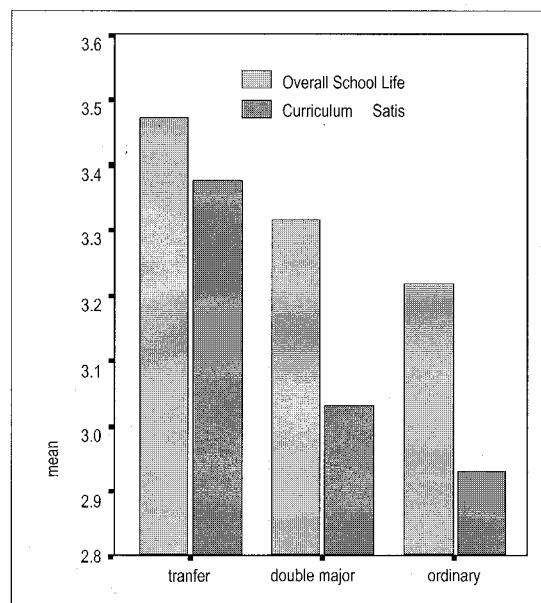


Fig. 2. Satisfaction level of overall school life & curriculum by student type

교수 전반에 대한 전체 학생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29명 (51.2%), ‘보통이다’ 105명 (41.7%), ‘불만족스럽다’ 10명 (4%) ‘매우 만족한다’ 7명 (2.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명 (0.4%)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54%가 만족하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을 경험하는 학생은 4.4%에 불과하여 이 영역에 대해 대체

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가 67명 (26.6%), ‘보통이다’ 86명 (34.1%), ‘만족한다’가 40명 (15.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6명 (6.3%), ‘매우 만족한다’가 1명 (0.4%)이었다. 치과대학내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학생의 16.3%가 만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약 32.9%의 학생들이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을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Fig. 1), 치과대학내 복지시설 중 기숙사 (3.44), 강의실 (3.16)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치대 도서관 (1.42), 식당 (1.54), 매점 (1.71), 편의시설 (2.24), 휴게실 (2.18), 그리고 동아리방 (2.38)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대 도서관 (87.4%)과 식당 (88.1%)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편입, 복수전공, 일반학생 집단 별 만족도 차이 비교

1) 학생집단(편입학, 복수전공, 일반)별 만족도 비교

(1) 생활전반 및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사편입학 및 복수전공, 일반 학생별로 치과대학 생활 및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Table 3.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by Transfer, Double Major and Ordinary Students

	Item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Curriculum Satisfaction	Between Groups	3.872	2			
	Within Groups	142.063	244	1.936	3.325	.038
	Total	145.935	246	.528		
Environment	Between Groups	1.898	2	.949		
	Within Groups	119.770	244	.491	1.934	.147
	Total	121.668	246			
Evaluation	Between Groups	.376	2	.188		
	Within Groups	99.365	244	.407	.462	.631
	Total	99.741	246			
Scholarship	Between Groups	6.570	2			
	Within Groups	162.107	244	3.285	4.904	.008
	Total	168.678	246	.670		
School Welfare	Between Groups	2.240	2			
	Within Groups	154.075	244	1.120	1.476	.231
	Total	156.316	246	.759		
Training Staff	Between Groups	1.045	2			
	Within Groups	100.623	244	.523	1.267	.283
	Total	101.668	246	.412		
School Program events	Between Groups	2.289	2			
	Within Groups	110.181	244	1.144	2.534	.081
	Total	112.470	246	.452		
Bright Prospect	Between Groups	.221	2			
	Within Groups	134.686	244	.110	.200	.819
	Total	134.907	246	.552		
School Climate	Between Groups	3.531	2			
	Within Groups	157.117	244	1.765	2.741	.066
	Total	160.648	246	.644		
Overall School Life	Between Groups	1.364	2			
	Within Groups	109.567	244	.682	1.518	.221
	Total	110.931	246	.449		
peer group	Between Groups	.952	2			
	Within Groups	147.485	244	.476	.788	.456
	Total	148.437	246	.604		

(Table 3), 치과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는 편입학생 (3.48점) 복수전공 (3.32점) 일반학생 (3.22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편입학생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편입학생 (3.38점) 복수전공 (3.04점) 일반학생 (2.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학생 집단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일반학생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Fig. 2).

(2) 치과대학 영역별 만족도

학사편입학 및 복수전공, 일반 학생 집단별 치과대학 생활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적평가>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학사편입학 및 복수전공 학생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3). 치과대학 생활 하위 영역 중 교육과정 및 장학전반 영역의 경우 학생 집단별 만족점수의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325$, $p=.038$; $F=4.904$, $p=.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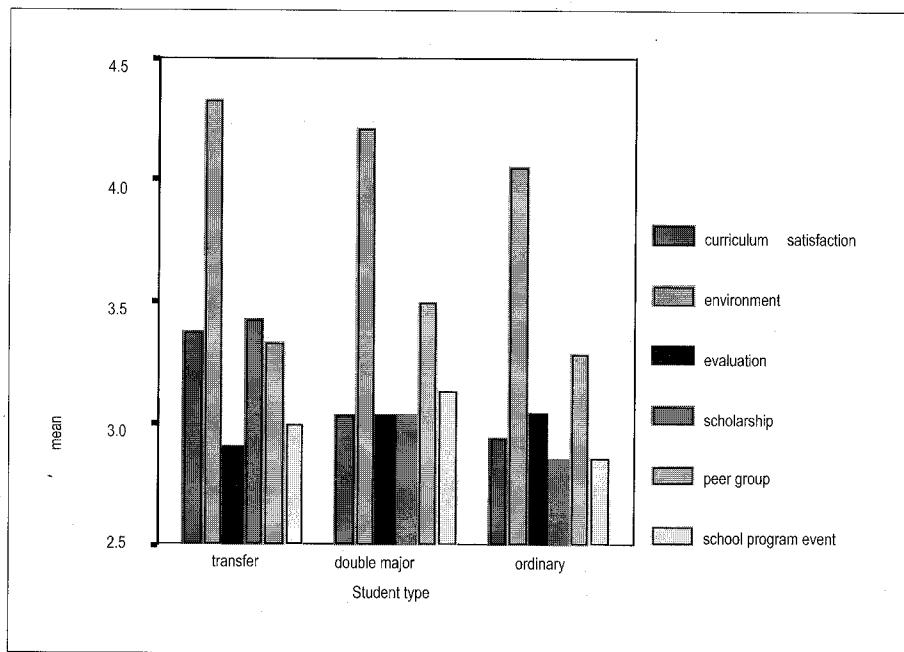


Fig. 3.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sub domains) by student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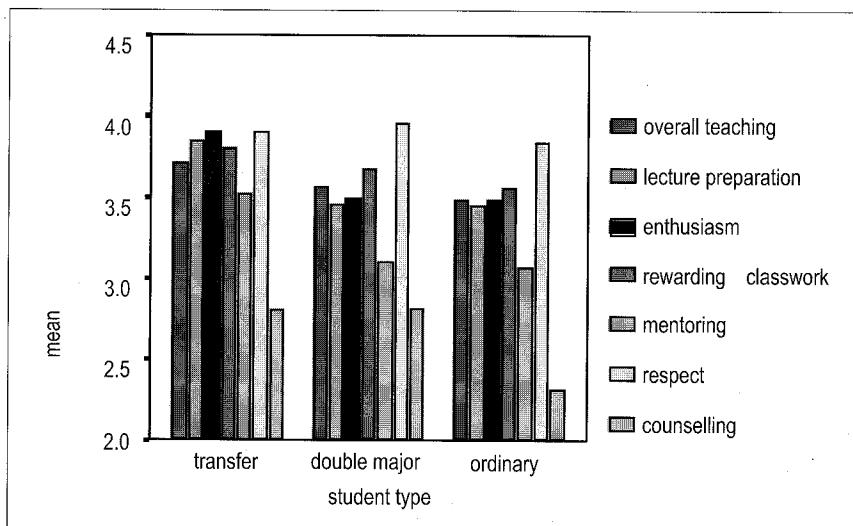


Fig. 4. Satisfaction level of training staff by student type.

치과대학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치과대학의 (교수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하위 차원 중 ‘존경하

는 교수님이 계신다’ ‘강의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다’ ‘열의와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유익하다’ 등과 같은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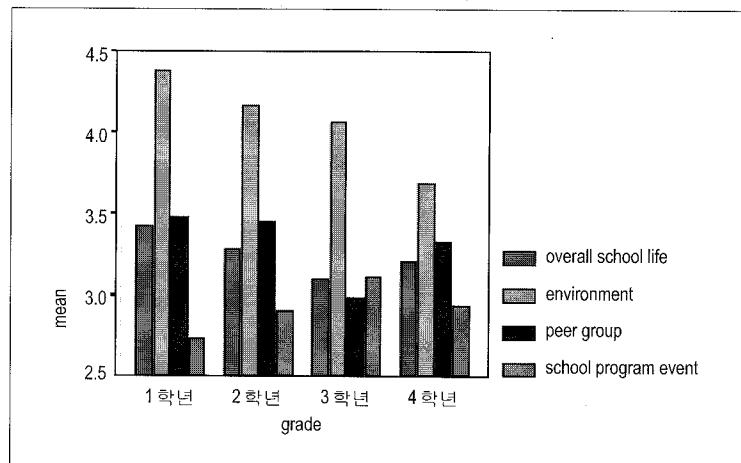


Fig. 5.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by academic year.

내고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교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만족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별 만족도 차이 비교

연대 치과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학년별로 알아본 결과, 1학년이 치대의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학년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1학년 (4.39) 2학년 (4.17) 3학년 (4.07) 4학년 (3.69)의 순으로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이 낮을 수록 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 수록 교육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Fig. 5).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학년별 만족정도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Table 4).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체학년 중 1학년 (3.45)이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이고 있으며 3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1학년 (3.45) 2학년 (3.28), 4학년 (3.21) 3학년 (3.12)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 수록 만족정도가 큰 반면 학업부담이 큰 3학년의 만족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치과대학 내에서의 동료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전체학년 중 1학년생들이 가장 높고 3학년 (2.98)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1학년 (3.48) 2학년 (3.45), 4학년 (3.3) 3학년 (2.98)의 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 치과대 3학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나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학습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 3학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치과대학내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체학년 중 3학년 (3.11)이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이고 있으며 1학년 (2.73)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3학년 (3.11), 4학년 (2.94) 2학년 (2.91), 1학년 (2.73) 순으로 나타나 3학년이 치과대학내 행사 및 활동 부문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반면, 1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학년별 특성과 치과대학 생활전반의 만족도에 대

Table 4.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by Academic Year

	Item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Curriculum Satisfaction	Between Groups	3.524	3	1.175	2.027	.111
	Within Groups	141.376	244	.579		
	Total	144.899	247			
Environment	Between Groups	14.663	3	4.888	11.151	.000
	Within Groups	106.946	244	.438		
	Total	121.609	247			
Evaluation	Between Groups	2.747	3	.916	2.233	.085
	Within Groups	100.055	244	.410		
	Total	102.802	247			
Scholarship	Between Groups	4.596	3	1.532	2.252	.083
	Within Groups	164.607	244	.680		
	Total	169.203	247			
School Welfare	Between Groups	.593	3	.198	.255	.858
	Within Groups	156.635	244	.775		
	Total	157.228	247			
Training Staff	Between Groups	1.461	3	.487	1.184	.317
	Within Groups	100.394	244	.411		
	Total	101.855	247			
School Program events	Between Groups	4.953	3	1.645	3.679	.013
	Within Groups	109.113	244	.447		
	Total	101.855	247			
Bright Prospect	Between Groups	4.166	3	1.389	2.620	.051
	Within Groups	129.314	244	.530		
	Total	133.480	247			
School Climate	Between Groups	5.482	3	1.827	2.842	.038
	Within Groups	156.905	244	.643		
	Total	162.387	247			
Overall School Life	Between Groups	3.825	3	1.275	2.918	.035
	Within Groups	106.611	244	.437		
	Total	110.435	247			
peer group	Between Groups	9.964	3	3.321	5.779	.001
	Within Groups	140.230	244	.575		
	Total	151.194	247			

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r=-.153$, $p<.005$), 환경전반에 대한 인식 ($r=-.338$, $p<.001$)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 수록 만족정도가 큰 반면 학년이 높아질 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치대 입학(편입 및 복수전공) 동기

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가 56.0% (141명), '일 자체에 대한 흥미' 13.5% (34명), '졸업 후 취업 전망이 좋아서'가 10.7% (27명), '부모나 친지 혹은 주위의 권유로'가 6.3% (16명), '치과의사에 대한 동경' 5.2% (13명) 기타 8.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치과대학에 입학한 동기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일 자체에 대한 흥미와 적성’이 입학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일반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나 주위의 권유’,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등의 이유가 포함되는데 반해 편입학생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학생들은 치과대학 입학 동기에 대해 ‘쾌적한 작업환경’(4.8%), ‘고수입’(4.8%) 등을 동기로 제시하였다.

고 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학사편입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학사 편입학 및 복수전공 학생들의 경우 치과대학의 학업적 수행능력이나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치과대학 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학업성취의 측면에서나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하위 영역별 차원에서 높은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사 편입학 제도는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전문직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여 치의학분야의 기술을 함양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계열선택의 시점에서 본인의 적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과정 없이 계열을 결정하게 되는 우리의 실정에서 자신의 전공 및 직업분야에 대해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 본인의 적성과 필요에 따라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사 편입학 및 복수전공 학생들의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선호 경향과 높은 동기수준, 학업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특별한 의식 없이 치과대학에 입학한 일부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직업적 적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특정한 능력과 기술의 소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욕구와 동기적 요소이다. 특히 인간을 상대로 의학적 기술을 펼치게 되는 의사의 경우 의학적 적성이 요구되는데 치과의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감은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복지 사회의 실현과 관련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치의학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과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동기요소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편입학 및 복수전공 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기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치과의사라는 전문적 직업에 대한 필요성의 지각과 자발성은 그 자체가 학업적 수행능력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관성을 밝혀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생선발방법은 그 대학의 교육목적에 따라 검토되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학계열의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이전대학의 전공과 치의학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학사 편입학제도가 비교적 그 목적에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예; 치과대학 교육과정 영역 및 복지시설, 조직 문화의 풍토 등)을 구체화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사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시 학생 선발방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혜선: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지각하는 직업성 스트레스와 소진경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양용주: 한국기업의 직무만족과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복수전공 전형자료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97

한운섭: 학사입학제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방문 교육과정 토론회 자료집. 한국의학교육학회, 1999

Edelwich & Brodsky: "Burn out: Stages of Disillusionment in the Helping Profession,"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80

Hackman, JR & Oldham, GR: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250-279, 1976

Pines AM, Aronson E, Kafry D: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Y. 1981

Smith PC, Kendall LM & Hulin, CL: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Rand-McNally. 1969